



크리스마스 썰 정신

예병일(연세대 생화학교실 교수)

1893년 캐나다 출신 선교의사인 제임스 홀과 로제타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으로 기록된 셔우드 홀(Shewood Hall)은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 돌아와 1925년부터 황해도 해주에 있는 구세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에 결핵환자가 많았고, 이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928년 해주에 결핵요양원을 설립한 홀은 한국인들에게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국민이 결핵 퇴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썰을 처음 발행하였다.

지금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1932년 썰에는 남대문(국보 제1호는 남대문이 아니라 승례문이다. 일본이 승례문이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남대문으로 고쳐 놓은 것을 수 년 전 문화재 관리국이 공식적인 이름을 승례문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이 도안되어 있으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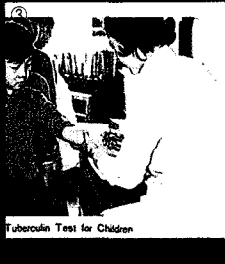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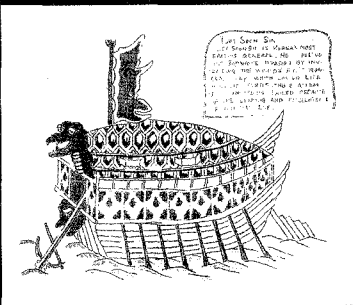
래의 도안은 거북선이었다.

항일 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본이 거북선을 도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썰은 1940년까지 9회 발행되었으나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 일본이 홀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 출국시키면서 발행이 중지되었다. 문창모의 주도로 1949년 썰 발행이 재개되었으며, 1953년부터는 그 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에서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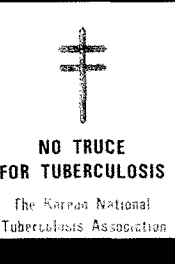
광복이 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결핵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으로 남아 있던 중 1962년부터 국가 결핵관리 제도가 도입되었고, 1965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도 서서히 “결핵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엑스선 사진에 나타나는 결핵 유병률은 1965년의 5.1%에서 1995년에는 1.0%로 낮아졌고, 1년 동안 감염될 수 있는 위험률은 1965년의 5.3%에서 1995년 0.5%로 낮아졌으며, 30세 이하의 경우 B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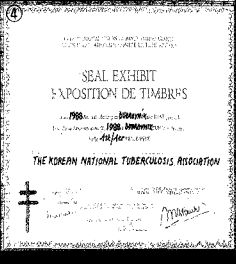
① 1932년 당초의
 썰 도안 거북선과 우발
 여곡절을 겪으며 발
 행된 최초의(1932)
 썰 남대문 ② 결핵
 예방 포스터 ③
 1976년 투베르쿨린
 반응검사와 엑스선
 사진기 홍보 전단 ④
 1988년 세계 크리스
 마스 썰 콘테스트 1
 등 상징.



Tuberculin Test for Children



X Ray Examination by Mobile Unit



접종률은 1965년의 24.3%에서 1995년 91.8%로 높아져 결핵 환자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보건소 차들이 엑스선 사진기를 싣고 돌아다니며 건강검진을 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엑스선 사진 촬영의 가장 큰 목적이 결핵 환자 발견이었다.

대한결핵협회 설립과 범국가적인 결핵 실태 조사, 그리고 경제 수준 향상에 의한 국민 보건 수준의 향상, 항생제 발달과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의해 결핵에 대한 위험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층은 물론 20~30대 환자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완전 해결을 위해

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결핵에 대한 내성균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같은 결핵에 걸려도 외국에서 걸린 환자는 쉽게 치료되지만 국내에서 발생된 환자는 치료되기 어렵다는 속설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어렵듯하게 이제 사라져가는 질병으로 생각되고 있는 결핵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3,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가는 무서운 질병이며,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같은 질병이 유행하게 되면 그 발생빈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질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卍

<지금까지 연재해 주신 예방일 선생님과 지면을 아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